



# 해외양돈뉴스



## ✧일본

### 세계최초로 냉동 수정란 돼지 생산

일본이 세계최초로 냉동 보존된 체외 수정란으로 돼지를 생산에 공했다. 최근 일본 농업신문은 아이치현 농업종합시험장에서 세계 최초로 냉동 보존 체외 수정란으로부터 새끼 돼지가 태어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체외 수정을 통해 수정란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동 상태로 보존이 가능해 우량 돼지의 증식이 보다 쉬워지는 것은 물론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 돈육 생산량 사상 최고치 갱신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06년 최고치를 갱신했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0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87만1천톤으로 전월 78만9천톤에 비해 10.4%, '05년 동월 82만6천톤 대비 5.4% 각각 증가했다. 이에 10월 돈육 생산량은 '06년 월별 생산량 가운데 최고치였던 3월 84만8천톤보다 3%가량 많아 '04~'06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미국의 10월말 돼지고기 생산량은 784만톤으로 '05년 같은기간 대비 2% 가량 증가했다.

### 돼지고기 수출 EU 추월 전망

농무부 07년 140만톤 예상

'06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유럽연합(EU)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미 농무부는 '07년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출량 전망을 통해 미국의 돈육 수출이 2006년 134만6천톤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하며 '07년에는 이보다 4.2%가량 많은 140만2천톤이 될 것

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EU의 수출량은 '06년 140만톤으로 '05년 대비 3.2% 늘며 '0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해 '07년에는 돼지고기 수출 1위 국가 자리를 미국에 내 줄 것으로 농무부는 내다봤다.

미국은 '03년까지 EU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돼지고기 수출국이었으나 '03~'05년 매해 20% 이상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 '04년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랐다. 또 '06년에 이어 '07년에도 돼지고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06년 9월말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92만5천톤으로 '05년 동기 85만2천톤에 비해 9% 가량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돈가 석달 연속 하락세 유지

미국의 돼지 값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1월 평균 돼지 값은(100kg 기준) 93.6달러로 전달 96.7달러 대비 3.2% 떨어지면서 9~10월 이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 91달러에 견줘서는 2.9%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도체 가격 역시 전월 대비 낮았으나 일년 전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평균 도체 값(100kg 기준)은 145.5달러로 10월 148.7달러 대비 2.2% 떨어진 반면 전년 동월 143.8달러에 비해서는 1.2% 높았다.

부위별로는 등심 2.07달러(kg 당), 안심 4.97달러, 갈비 2.57달러, 후지 1.63달러로 한달전에 견줘 각각 5%, 4.8%, 0.4%, 6.9% 떨어진 반면 삼겹살은 1.73달러로 10월보다 2.4% 올랐다.

## ✧덴마크

### 돈육 생산 국내산 줄이고 해외생산 확대

덴마크가 환경규제 및 생산비용 문제로 자국에서의



돈육 생산량을 줄인 반면 외국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최근 덴마크 돼지고기기구연합(DS)은 덴마크 최대 돈육 생산회사인 데니쉬 크라운사가 돼지 도축장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국내 돼지 도축 두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덴마크는 7월 기준 돼지 사육두수가 1천339만마리로 '05년 보다 4.5% 가량 증가했음에도 7월말 도축 두수는 전년 동기대비 2% 가량 줄었다.

이처럼 도축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덴마크 내 환경 규제 및 생산비용 증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DS는 분석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독일로의 생돈 수출이 증가세에 있으며 이 밖에 폴란드 등 다른 EU 국가로 양돈장이나 도축 가공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른 나라로 생돈을 수출, 그 나라에서 비육·도축·가공해 햄이나 소시지 등은 덴마크에서 소비하고 돈육은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양돈업자들이 더 늘 것으로 DS는 내다봤다.

## ✧ 러시아

### 유럽연합간 통상분쟁 확산 조짐

러시아가 유럽연합(EU)의 육류 수입을 금지키로 하는 등 양측 간 통상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07년부터 EU의 모든 육류제품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EU 측에 통보했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 '07년부터 EU로 편입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두 나라가 EU로 편입될 경우 오염된 돼지고기 등이 자유롭게 역내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EU 관계자는 "EU는 그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제품과 관련, EU 수준의 검역 및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추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거나 필수적이거나 혹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의 육류 제품에 대해서도 '05년 11월 식품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 네덜란드

### 돼지 사육두수 증가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05년 감소세를 보였던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두수(7월 기준)는 '06년 1천338만8천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 1천280만9천마리에 비해 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돈은 142만2천마리로 일년전 135만4천마리 대비 5%가 늘었으며 50kg 이하 비육돈과 도축용은 각각 571만1천마리, 372만7천마리로 '05년 동기에 비해 1.8%, 7.4% 각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네덜란드의 돼지사육두수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에 이어 EU국가 가운데 다섯번째 규모다.

## ✧ 에콰도르

### 돼지열병 발생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은 에콰도르 나포주에서 지난달 돼지열병이 발생, 12마리가 폐사 또는 도축됐으며 49마리가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열병이 발병한 농장은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산지가 불분명한 3두의 돼지가 유입돼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 중 국

### 농업부, 한국산 가금류 수입 방지 긴급 지시

중국 농업부는 지난 11월 29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한국으로부터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이 중국 내로 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한반도와 인접한 6개 성에 긴급 통보했다.

중국 농업부는 한국의 전북 익산과 경기도 평택에서 AI 혹은 의사 시가 발생했다면서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라오닝(遼寧),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 6개 성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국경지대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유통과 무역 감독,관리를 강화해 한국의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이 중국 내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 ✧ 태 국

### VIV Asia 2007 저널리스트 프로그램 개최

내년 3월 7~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VIV Asia 2007'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이 유럽 및 동남아 각국 37명의 저널리스트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됐다.

식품의 안전성을 주제로 개최되는 VIV Asia 2007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기자를 대상으로 태국 식품회사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급성장하고 있는 태국 축산업에 조망할 수 있는 VIV Asia 2007의 사전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 세 계

###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유럽은 확산

덴마크·네덜란드·영국 등 축산물 안전성에 관심이 많은 EU(유럽연합) 국가들 상당수가 c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EU의 식품관련법에는 모든 신선육은 생체 그룹이 식별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럽은 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는 쇠고기의 경우 귀표를 통한 개체식별과 등록, 그리고 유통단계에서의 라벨에 의한 확인 등 이동경로에 따른 구분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돼지의 경우 개체가 워낙 많다보니 돈군 또는 농장에 따른 이력추적시

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장에 고유번호를 주고 출하시 문신 표시 등으로 그룹별 관리를 한다. 특히 도축 이후에는 도축장 등 이력정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돼 가공장으로 이동되며, 가공장에서는 부분육에 바코드로 표시돼 판매장으로 이동된다. 이에 따라 이력추적은 도축장 번호와 바코드 번호에 표시된 정보로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축산물 위생검사를 통해 수집되는 모든 도축단계 정보는 도체별로 기록되며 출하농가 또는 보험업체에게 통보된다. 도축장의 과실에 의해 도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농가피해액을 변상토록 한 것이 특이하다.

일본은 JAS(일본농림규격협회) 규격 안에서 이력추적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 라벨을 보고 축산물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얻는다. 가축의 출생부터 출하까지의 사양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개체별 생산정보 입력은 IC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소에 대해 개체식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FAO, AI, 인간전염 전환 가능성 경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2월 6일 동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코카서스 지방이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FA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인간 전염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어느 한 나라가 이 질병을 봉쇄하는 데 실패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급속하게 다시 감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렉산더 물러 FAO 사무차장은 "하나의 약한 고리가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놓은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자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이 전했다. FAO는 특히 지원 기금의 부족으로 일부 지역이 상당히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 뒤, 더 한층 투명성을 높이고 변종 바이러스를 비롯한 관련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